

새 싹을 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살생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지니... 예, 지키겠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말지"



◇오계를 수지한 학생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서 새롭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다.

부산서 온 이름없는 '부산이' '선재' 라는 범명받고 희색

소적새마을 단오맞이 첫 수계식 현장

장애원생등 108명 '새생명' ... 2천여 신도 축복

나... 예, 지키겠습니다.
 연신 내리는 굵은 장마비 사 이로 간간이 내비치는 햇빛이 마치 잔잔한 부처님의 미소를 연상시키던 지난 20일 치악산 자락의 소적새마을(원장 보각)에서는 단오를 맞아 봉행된 수계식으로 활기를 띄고 있었다. 오늘날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부산이'로 불리우던 선재나,

불명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과 보각스님이 수계대법사로 나선 이날 수계식은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소적새마을 원생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2천여명의 신도들이 증달법사가 되어 축복해주는 가운데 치러졌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를 불만 어 불음주의 오계를 수지한 4살바기 지체장애아 '부산이'가 새롭게 받아낸 '선재'라는 범명이 어색한지 수계대법사로 나선 원장 보각스님의 가사자락을 붙잡으며 스님 어깨에 올라타 사뭇 진지하게 진행되던 수계식장을 한바탕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부산아, 아니 선재야 이러면 손님이 흥 보잖니"라며 자원봉사자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며 달려오 보지만 선재는 여간해서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선재의 예고(?)없는 행동에 용기를 얻은 원생들이 연비의 따금함에 몸을 움찔하던 긴장감도 잊은채 약속이나 한 듯 "스님 사랑해요. 이제 우리도 부처님이죠"라며 향림사 대웅전 스님들의 목덜미에 매달리며 어눌한 몸짓과 목소리로 애써 오늘의 기쁨을 표현했다. 소적새마을을 찾은 2천여명의 신도들은 진진하게 무릎꿇고 앉아있던

원생들의 가식없는 행동이 마냥 귀엽고, 기특하지만인지 그치지 않는 박수로 원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장대비가 가짜승려 일력으로 인해 겪어왔던 아픈 기억들을 말끔히 씻어내기도 한듯 원생들의 환한 미소는 소적새마을의 안정된 마을분위기를 금세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많은 역경을 겪고 부처님 품안에서 용아리를 뜬 소적새마을이 이제 소외된 이들의 정든 삶의 터전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것이었다.

원주=도필선 기자

여름은 수행의 계절.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사찰과 수행단체들의 수련대회가 마련되고 가운데 독특한 주제를 내건 전문수련대회도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대개의 수련대회는 신령체질, 아이캠프, 극기훈련 등 포괄적인 신령경험을 위주로 하지만 전문수련대회는 특정분야의 수행으로 짧은 기간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교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문수련대회의 특징은 △수행생활 통한 심성개발 △참나찾기 △공동체생활 통한 동사심(同事心) 함양 △명상통한 통찰력 기르기 등이다. 또 이같은 수련대회는 승가의 수행법만을 강조하지 않고 불교의 승가생활과 청정수행정신을 바탕으로 단일화된 수련으로 기존의 관념을 타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련대회도 전문화시대

특정분야 선택 짧은기간 참여

'죽기위한 가르침' '진언명상' 등 다양

위빠사나 수련 일반인에 호평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4년전부터 열불신앙과 정토수행법으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타종교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박2일의 주말수련회를 열고 있다. 이는 각박한 도심생활에서 벗어나 밝고 맑은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년 대원사는 여름을 맞아 '죽기위한 가르침'이란 주제로 정토수행법, 열불명상법, 산체조, 자비관, 육근참회 등을 프로그램으로 주말수련회를 연다. 현장스님은 "현세뿐만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춰 수행하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보인다"며 "이를위해 금

년에 살기위한 것이 아니라 죽기위한 여름수련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요즈음 명상법이 직장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위빠사나 명상수련도 일반인들에게 호평받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는 7월 6일부터 21일까지 초보자 및 중급자를 위한 단기수련회를 실시한다. 봉영사측은 "일일 14시간 이상의 좌선과 행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위빠사나는 순간순간 고요하고 명료한 깨달음을 통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영월 보덕사(주지 현오)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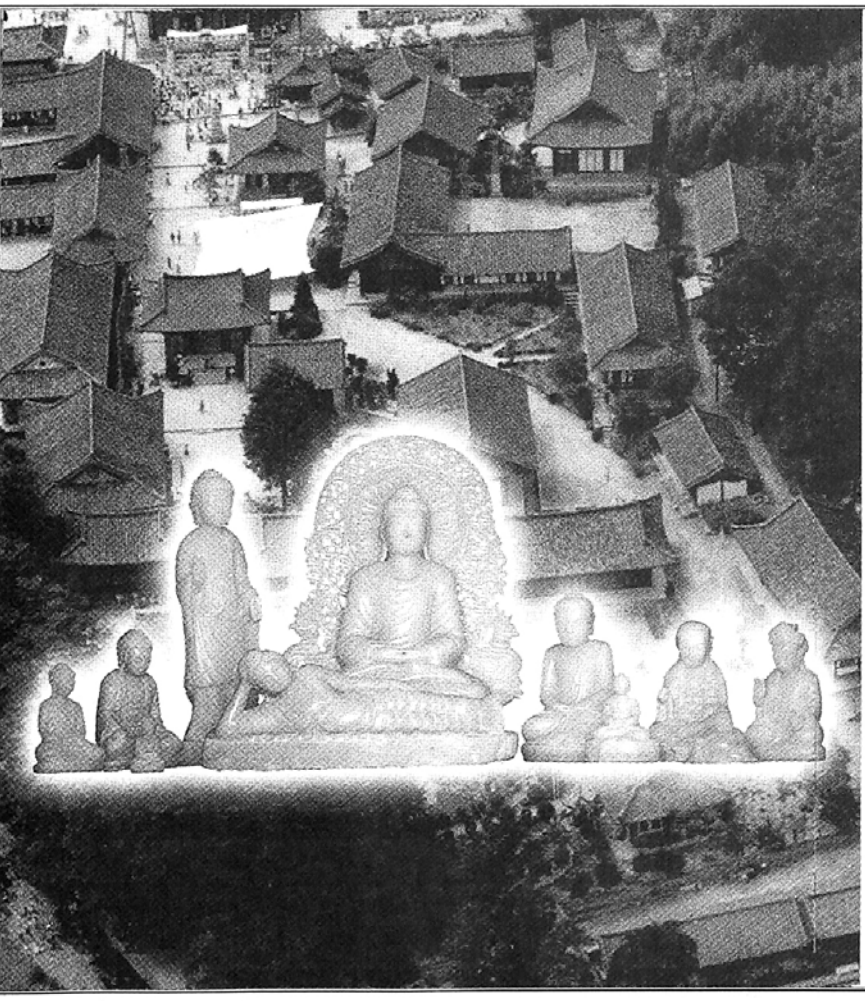
21일부터 8월9일까지 하계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설한다. 이밖에도 천리안 동호회(시상 유수호)가 7월 12일~14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하고 정토수련원(원장 법륜)도 지난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깨달음의 장, 나눔의 장, 열불 진언명상으로 나눠 실시하는 등 독특한 프로그램을 단일화시킨 전문수련대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열불선 수련회에 참가했던 박연준씨(30·회사원)는 "고요하고 맑은 전문 수련도량에서 체험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며 "올해도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수련대회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고 자랑했다.

김중근 기자

만화 **법구경**

* 지옥의 장 *
 가사(袈裟)를 머리에서부터 떨어뜨려도

이항원



부처님을 조성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옥(玉)에 대해 다년간 연구(研究)를 해온 몇몇 불자(佛子)들이 신심(信心)을 내어 사찰(寺刹)에 모신 부처님에 대한 경애심(敬愛心)을 한층 더 고취(高就)시키고 한국불교문화(韓國佛敎文化)를 계승(繼承)·발전(發展) 시키고자 금강옥불주식회사(金剛玉佛株式會社)를 설립하여 옥(玉)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準備)하였습니다. 대불(大佛), 대탑(大塔), 108불, 1천불, 3천불, 1만불 등과 불가(佛家)에서 필요로 하는 옥(玉)에 대한 모든 것을 조성(造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룩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 조상님들의 전언에 의하면 옥을 지니면 기(氣)가 통하여 영액순환에 좋아 몸을 따뜻하게 하며 집안이 융성하게 되어 부(富)가 늘게 되어 모든 집귀기 시러진다고 전해진다.

대표이사 이 상 필 승掌
 항상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불조성전문업체
金剛玉佛株式會社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동 190-24번지
 TEL:(051)802-4696~7 FAX:(051)802-4698